

로저 페더러, 'RF' 로고 되찾는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가 자신의 상징이던 'RF' 로고를 되찾을 전망이다.

11일 '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이탈리아 매체 라이브 테니스는 전날 페더러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해 "페더러가 'RF' 로고를 되찾게 됐다."고 전했다. 에이전트 토니 갓식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RF' 로고를 쓰게 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페더러는 현재 무릎 수술을 받은 뒤 6월 잔디코트 시즌에 맞춰 재활 중이다. 복귀 무대로 유력한 워블던을 전후로 다시 'RF'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을 것 이란 전망도 나온다.

페더러는 지난 2018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RF' 로고와 결별했다. 아마추어였던 1994년부터 나이키와 스폰서십 관계를 이어오던 글로벌 유명 스포츠브랜드인 나이키와 계약 연장을 포기한 뒤 일본의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와 계약했다. 페더러의 로고 'RF'는 브랜드 내에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에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는 서브 브랜드였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페더러는 유니클로의 10년간 3억 달러에 이르는 러브콜을 받아들여 나이키를 떠났다.

이후 유니클로의 유니폼에는 'RF' 로고를 달 수 없었다. 'RF' 로고에 대한 라이선스 권리가 여전히 나이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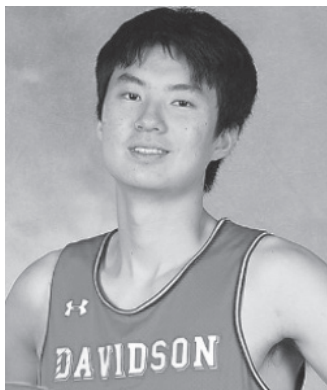
▲로저 페더러의 상징이던 'RF' 로고를 되찾을 전망이다.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페더러는 'RF' 로고를 되찾고자 했다. 자신의 이니셜을 딴 'RF' 로고는 2003년 아내 미르카와 그녀의 아버지가 페더러 향수 브랜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키는 2000년대 후반부터 페더러 상품에 'RF' 로고를 새기기 시작했다.

페더러는 나이키와 계약이 끝난 직후 "아마 곧 내가 그 상표를 다시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나이키와의 긍정적인 협상을 밝혔다. 그는 " 'RF' 로고는 나쁜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다. 그 로고는 내 이니셜이고, 내 것"이라며 애정을 보여왔다. 페더러는 복잡한 계약 문제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RF' 로고를 붙일 수 있게 됐다. 그는 현재 유니클로의 의류를 착용하고 있지만, 신발은 여전히 나이키와 계약을 유지 중이다.

미국대학농구 이현중, 콘퍼런스 '신인 베스트 5' 선정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디비전 1에서 활약하는 이현중(20·사진)이 2019-2020시즌 콘퍼런스 신인 베스트 5에 뽑혔다.



점 이상 넣은 경기가 12차례, 한 경기 최다 득점은 20점이다.

이현중은 지난해 미국프로농구(NBA)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인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의 모교인 데이비드슨대에 입학했다. 현재 이 학교 사령탑인 밥 맥킬롭(69) 감독은 1989년부터 데이비드슨대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커리를 직접 가르친 지도자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데이비드슨대 1학년인 이현중은 이날 소속 콘퍼런스인 애틀랜틱 10 콘퍼런스의 이번 시즌 신인 베스트 5에 선정됐다.

키 201cm인 이현중은 이번 시즌 애틀랜틱 10 콘퍼런스 주간 최우수 신인에 두 차례 이름을 올렸고 28경기에 출전해 평균 8.4득점에 3.1리바운드를 기록했다. 10

이현중의 어머니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 성정이 씨이고 아버지는 고려대와 삼성전자에서 선수로 활약한 이윤환 씨이다.

임성재, 페덱스컵 '랭킹 1위' 한국 선수 최초

임성재가 페덱스컵 랭킹 1위로 올라섰다. 비록 시즌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한국 선수가 페덱스컵 랭킹 1위에 자리한 것은 임성재가 처음이다.

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임성재는 전날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 달러) 단독 3위(최종합계 2연타파 286타)에 올랐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파72)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임성재는 12번홀(파5)까지만 해도 공동선두를 유지해 백투백(두 대회 연속) 우승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막판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3위에 머물렀다. 우승은 티털 해튼(영국)이 차지하며 우승상금 225만 달러를 차지했다.

임성재는 경기를 마친 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편이어서 한번 우승 경쟁을 했는데 후반 몇 개 홀에서 아쉬운 플레이가 나와 원하는 결과는 안 나왔다."면서 "우승 경쟁을 한 것 만으로도 엄청난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 출신 최초로 지난 시즌에 PGA투어 신인왕에 오른 임성재는 이번 시즌에 13개 대회에 출전, 단 한 개 대회에서만 컷 탈락했고 '톱10'에 다섯 차례나 입상하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서는 퍼트와 그린 주변 어프로치 등 업그레이드된 쇼트 게임 퍼포먼스를 보여 주면서 새로운 강자의 탄생을 예고했다.

한편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641,700달러의 상금을 획득하며 이날 현재 올시즌 획득상금 3,862,168달러로 토머스(4,214,477달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로리 맥킬로이(북아일랜드)는 3,832,721달러로 3위에 올랐고, 패트릭 리드(미국, 3,226,531달러), 마크 레시먼(호주, 2,996,025달러)가 뒤를 이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